

덕암 스님이 걸어온 길

덕암 대종사 법어집 김기훈 엮음

꽃은 뜰 속에서 웃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하네
활안 스님 엮음
불교정신문화원 / 각권 3만원

지난해 11월 원적에 든 전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의 법어집 두 권이 출간됐다. 불교정신문화원이 펴낸 <꽃은 뜰 속에서 웃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하네>와 <덕암 대종사 법어집>은 각각 스님의 49재와 백일재를 기념해 선보인 책이다.

<꽃은...>에는 스님의 생애와 행장, 사진, 오도송, 상당법어 그리고 저서 <불교신앙의 바른 길>과 <대승보살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담았다. 전 태고종 종정 보성 스님과 원효종 종정 법흥 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도갑 이사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0여 명이 쓴 '내가 아는 덕암 스님'에서는 스님이 평생 마련한 6억 원을 서울 법륜사 건립불사 기금으로 내놓은 일이나 인도 성지순례로 쿠사나카라성 부처님 다비장에서 1시간 이상을 오열한 일화 등을 생생히 볼 수 있다.

<덕암 대종사 법어집>에는 신론과 잡지 등에 실린 스님의 대담 기사와 저서 <불교 기초 교리>, <인도 성지순례기> 등을 실었다. (02)969-2410

마음바탕 알고 싶다면...

선과 깨달음 박건주 지음 / 운주사 / 8천5백원



"어떻게 힘이 분별하지 않는 것일까(何爲無分別)?" (일체법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於法不生心)."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박건주 교수의 <선과 깨달음>은 박 교수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선종의 심지법문(心地法門, 마음바탕 법문)과 1900년 돈황에서 발견된 선종법문에 해설을 덧붙여 책으로 펴내는 첫 번째 결과물이다.

박 교수는 "육조혜능 스님 이후 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선사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낮은 반면 초기 선사들의 목소리는 아직 낮지 않다"며 "초기 선사들의 심지법문은 간단하지만 그 자체로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종의 역사를 고찰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본문과 해설을 합친 분량이 40여 페이지가 채 안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말마디의 의미를 명료하게 담고 있는 <심명>은 심지법문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심명>을 지은 우두법승(牛頭法隆, 594-657)의 생애와 우두종의 법계를 소개하고 본문을 풀이했다.

이 밖에도 1900년 돈황 마고굴에서 발견된 <절관론>과 달마선(達摩禪)의 진수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현종기>를 비롯해 선법과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말마디사의 법문인 <이입사행론>과 <안심법문> 등에 관한 설명과 본문 해설이 담겨있다.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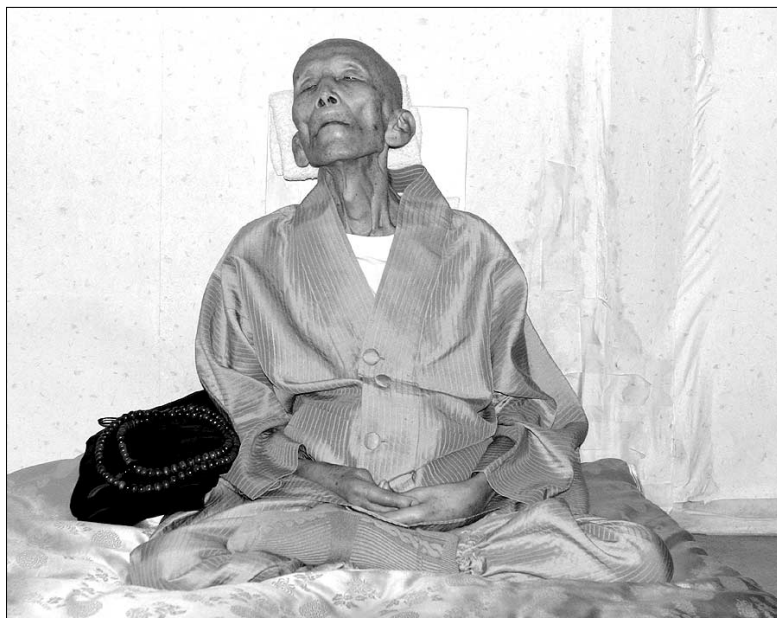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

나왕 겐렉 리포체 지음 / 정승석 옮김
초당 / 9천원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오진탁 지음
청림 / 1만원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해 12월 원적에 든 서울 스님의 열반은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세인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서울 스님의 좌탈 모습.

죽음은 삶의 거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좌탈에 든 서울 스님이 세인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도 수행자로서의 스님의 생애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선보인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과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은 이처럼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침서다.

달라이 라마의 조카이자 티베트 라마인 나왕 겐렉 리포체가 지은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은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생사관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 전체는 네 가지 상태, 즉 삶과 죽어가는 과정, 죽음, 죽음 이후 그리고 환생으로 나누어진다. 죽음이 삶과 반대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일 따름인 것이다. 때문에 지은이는 책에서 죽음에 대비해서 해야 할 최선의 것은 인내와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매일 실천한다면 죽음이 직면할 때 당황하지 않고 부정한 감정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한 차례의 삶에서 사용한 몸이 때론의 삶에 동반하는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을 나의 분노와 집착 그리고 자아를 쉬게 하는데 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역시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 있게 만들 수록 임종시에 후회할 일은 그만큼 적어진다"며 "자비심을 계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지 있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지은이는 책에서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순간의 불연이나 불만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나 행동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므로, 심기가 불편해질 때면 마음을 관찰해보라고 말한다. 또 자신을 '가장 소중한 자'로 인식하고 남은 시간동안 부처님처럼 깨달은 존재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수행할 것을 권한다.

'명상하는 법'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마음 치료하기'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법도 소개한다.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을 펴낸 오진탁 교수(한림대 철학과) 또한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올바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생사학(生死學)'을 연구하고 있는 오 교수는 "삶과 죽음 혹은 생성과 소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한 그림양 안에서 진행되는 영원한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학원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초등학교생과 지하철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가위로 찢어 숨지게 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비롯해 인락사와 낙태, 자살, 사형, 에이즈 등 아홉 가지 주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죽음과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오 교수가 말하는 '이상적인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여섯 가지 반성을 보인다고 한다. 첫 번째가 자신의 죽음을 부인(否認)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임이다. 다음으로 주위 사람에게 화를 내는 단계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삶의 마무리' 단계를 맞이합니다. 이어 우유의 단계를 지나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죽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이 현재 행하는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라'는 티베트 사자의 사)의 가르침처럼,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커다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성장'의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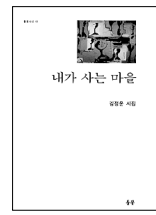
■ <명문종가 이야기>(이연자 지음, 펴낸사, 1만8천원)=오랜 전통의 종갓집 살림과 종갓집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사라져 가는 우리 생활문화를 되살리려는 이연자 우리문화원장이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전국의 명문 종가 18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취재한 기록이다. 진보 이씨 퇴계 이항 종가와 사육신 종 유일하게 대를 잇고 있는 박팽년 종가를 비롯, 고성 이씨 귀래정종 종가, 안동 김씨 정현공파 해현 종가 등 종갓집의 내림 음식 비법부터 생활문화까지 대를 이어 온 전통이 담겨 있다.



■ <거지성지 1, 2>(전재성 지음, 안그라픽스, 각권 8천5백원)=1999년 발간됐던 <거지성지>와 2000년 선보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가 상·하권으로 재편집돼 나왔다. 한국 빼알리성현협회 회장인 지은이가 독일 유학 중에 만난 '거지성지' 페터 노이아트와의 7년간의 교류와 거지에서 배운 깨달음을 담고 있다.



■ <내가 사는 마을>(김정운 시집, 들꽃, 5천원)='입고 벗은 옷 수십 벌이/안 입는 옷도 있지만/여전히 벗지 못한 옷/두 벌 반이다.'('옷' 전문) 현대불교문인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김정운 씨의 시집. 그의 시는 "불교적 신심을 바탕으로 신성한 삶의 바다 위를 지혜롭게 건너가려 애쓰는 치열한 구도 정신을 보여주며 '고명수 시인', '시적인 화두는 철학적 문답이므로 더 인간적인 통찰력에 뿌리를 두기에 여운을 갖는 대성춘복 시인'."



■ <선과 깨달음> 박건주 지음 / 운주사 /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호 스님	시공사
2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3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이르는 길	달라이 라마	경성라인
4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
5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6	운명을 뛰어넘는 길	김지수	불광
7	탁발한 스님의 반야심경	탁발한	장경각
8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9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거사	불광
10	발삼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에시이문 전화: (02)737-0695

바른수행 바른개성 법기사

2004년 법기사 겨울 수련회
3박4일간의 출가

TEL. 02-854-1848
www.bubkisa.or.kr

장소: 경기도 양주군 도리산내 육자장사
기간: 2004. 2. 19.(목) - 2. 22.(일)
대상: 바른 불교 수행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참가비: 일반 8만원 / 학생 6만원 (교통비 별도)
참가신청: 홈페이지 및 선원 방문접수
수련주제: 1. 나를 향한 꿈과 열정
2. 불교로 철학하기
3. 바른 수행을 향한 첫걸음
4. 체계적인 불교 수행
5. 그리고 영원한 대지유!

문의: 서울 02-854-1848, 부산 051-516-9104
011.9161.9532 / www.bubkisa.or.kr

주최: 서울대학교 불교동리수행불교회 후원: 법기사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방체 신축비량 남습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흡수전유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 동(경남 신성)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편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한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생활습관에 맞는 열당당량 시용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신진대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릎,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법복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고급 모직: 특장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 무명 (목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 무명, 면: 면 100%(목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 숨 없는 누비(목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 면 목화솜 누비(목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 골덴: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범복 모직 60,000~8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아절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정: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